

죄에 대하여 II

작성일 : 2010. 08. 27. (금) 오전 09:33

작성자 : 김진미 (부산열매교회, 교역자)

제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모든 시간, 모든 삶을 드리며 살겠노라 고백하였을 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.

* 하나님 말씀 *

사랑하는 여인아~

네 신랑 나 여호와니라.

내 말 잘 기록하거라.

오늘은 죄에 대하여 한 말 하려 한다.

죄란 무엇이나?

나 여호와를 벗어난 삶

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삶 자체가 죄이니라.

의란 무엇이나?

반대로 나 여호와의 주관권 안에서

내 진리를 준행하며 사는 삶이 아니냐?

의의 근본은 무엇이나?

바로 나 여호와이며

나 여호와의 정신과 사상이며

나의 이 사상의 핵심은 바로 ‘사랑’ 이다.

그러니 죄를 두고 더 근본으로 말하자면

나의 핵심적인 사상이나 ‘사랑’

이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니라.

나는 요즘 생각이 깊어진다.

내 사랑하는 신부들..

바로 너희를 보며

생각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구나!

시간은 없고...

재림의 때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

내 아들 예수가 이 땅의 신부들을 데리러 올

그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.

그러나.. 준비된 자가 누구인가?

너희 선생을 통해 내 너희 준비시키려

많은 말씀을 쏟아 내었다.

처음은 긴장하는 듯하였으나

다시금 너희들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

내 마음.. 깊은 근심에 쌓이는구나!

말씀은 들어 재림의 이론은 아는데

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며

신부로 단장한 자가 그리 많지 않으니

내 근심이 하늘에 닿는구나!

신부의 핵심 사랑, 재림의 핵심 사랑,

구원의 핵심 사랑, 의의 핵심도 사랑..

사랑이 근본임을 아나

실제로 사랑을 이루는 자가 얼마 있느냐?

이 재림 주관권의 시대는

나 여호와를 믿고 따르더라도

신부로서 나 여호와를 맞아

내 기대하는 신부의 사랑을하지 않으면

그것이 죄라 하지 않았느냐?

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고

죄인지도 모른 채 죄 짓고 사는 자 많구나.

구약.. 아담 하와의 이성의 범죄로 인한 죄.

신약.. 내 목숨과 같고 나 자신과 같은

내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살인한 죄

이 시대..재림 주관권의 시대

바로 내가 보낸 시대 사명자를 온전히 사랑하지

않는 죄

내 아들 예수, 나 여호와를

신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죄

이 시대 많은 자들이

자신의 죄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또 죄 지으며

죄의 무게 속에 저 어둠의 길로 가고 있구나.

이 섭리는 어떠하냐?

너희 진정 의를 행하며 죄의 짐을 다 벗어 던지고

빛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?

너희 삶을 보아야 한다.

나의 진리를 머릿속에만 넣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.

이 귀한 진리의 말씀 받고도

개인의 욕을 중심하여 사는 자들.

진리를 자신의 욕신화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.

이 재림의 때를 알고도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.

알고도 행치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?

행하지 않는 죄와 함께 심정의 죄가 가중되어 더 큰 죄를 낳느니라.

너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.

목숨 다해 삼위를 찾고 신부되어 사랑하느냐?

너에게 진정 묻고 싶다.

한번 말해 보아라.

그리고 이 시대 사명자 너희 선생을

진정 사랑하고 있느냐?

그를 내 욕으로 생각하며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?

그와 일체되고자 늘 의논하며 함께하며 가고 있느냐?

그리고 또 하나의 뜻..

너희 형제를 나 주 여호와를 사랑하듯

목숨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?

말해 보아라.

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추지 않고서는

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을 수 없는 것이다.

이 세 가지를 완벽히 갖추지 못한 것이

바로 불의요 죄니라.

사랑! 사랑! 사랑! 사랑!

그 사랑의 근본을 알고 진정 사랑하여라.

진심으로 사랑하여라.

네 마음이 100% 사랑으로 가득한지 보아라.

아직도 마음이 100% 사랑이지 않은 자가 대부분이다.

마음에 가라지가 많은 자들이 너무 많다.

가라지는 천국에 갈 수 없다.

알곡만 공간에 들어는 것이다.

네 마음에 가라지가 있다면

네 인생의 결과물은 가라지 인생일 것이다.

네 마음을 잘 보아라.

자기를 온전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?

먼저 네 마음의 최우선에 삼위를 두고 있느냐?

너의 삶의 모습을 잘 보아라.

모든 것이 나의 뜻이 먼저이냐?

네 뜻이 먼저이냐?

모든 것 나의 사랑 얻고자 하는 것이 먼저이냐?

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.

대부분 자신의 소망, 욕망, 야망을

이루고자 하는 자가 대부분이구나.

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

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대부분이다.

하루 삶을 잘 지켜보아라.

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‘주님 인도 하소서’ 말하
나

너희 삶의 시간 모든 것을 잘 보아라.

1분 1초 내게 물으며

내 뜻대로 하루 일과를 계획하며

내 사랑에 더욱 올라오고자 모든 시간을 짜고

내 뜻 이루고자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며

사는 삶인가 잘 보아라.

그리 살고 있는 자 얼마나 있느냐?

다 자기 계획대로 살고,

어떤 이는 아무 계획 없이

시간 흘러가는 대로 인생 낭비하며 사는구나.

이 재림의 기간 1시간 1시간이

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

귀한 시간 낭비하며 사는 자가 대부분이구나.

이를 어찌하면 좋을꼬...

너희 선생은 1분 1초 지나가는 것 아까워

밥 먹는 시간,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끼며

내 말씀 받으려 목숨 걸고 있고

너희 살리고자 목숨에 목숨을 걸고 있다.

이 재림의 기간 1초는

과거의 역사 구약시대, 신약시대의

10년, 100년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.

나는 진정 너희가 알길 원한다.

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 매분 매초가
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..
목숨을 다해 이 시간을 잡아야 한다.

시간은 얼마 없고
너희의 삶은 너무 더디 깨닫고 더디 변화되니
걱정 또 걱정이구나.

내가 다시 한 번 말하니
지금은 시간이 나 여호와다.
그러니 시간을 잡으라.
1분 1초도 놓치지 말고
나 여호와를 잡듯 시간을 잡고
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
1분 1초 잡고 또 잡아 자신을 만들라.

시간을 허비하는 것, 그것 또한 죄니라.
필요 이상의 잠으로 보내는 시간, 죄니라.
게으르고 나태하여 시간만 흘리며
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또한 죄니라.
매시간 매분 매초 내 뜻 살피지 않고
자기 뜻대로 시간 쓰는 것, 죄니라.
시간의 가치를 모르고 잡담하며 보내는 시간도
죄니라.
하루 시간 중 십의 일조의 시간, 새벽을 깨워
먼저 내게 온전히 내 시간을 내게 주지 않는 것,
죄니라.
내 시간 나를 최우선하지 않고
내 사랑을 목적하며 살지 않고
핵심인 ‘내 사랑’을 잊은 채 열심히 내는 것 또
한 죄니라.

사랑아... 내 사랑들아...
너희는 너희 삶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.
특별한 이성의 죄, 살인죄, 간음죄, 도둑질...
이러한 것만이 죄가 아니니라.

진정 이 시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,
신부된 너희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,
내 육신 된 너희 선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,
내 쏟아 붓는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
생명시 하지 않는 것,
너희의 표상으로 보낸 선생의 삶처럼 살고자
노력하지 않는 것,
내 사랑에 도전하지 않는 것,

기성화 되어 삶에 빠져 사는 것,
진정 삼위를 온전히 신부로서 사랑하지 않는 것,
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,
내 속의 가인의 근성을 뿌리 뽑지 않는 것,
이 역사 앞에 부른 모든 자들은
시대를 깨울 사명자이거늘 그 사명을 감당하지
않는 것,
게으름, 나태함, 무지함으로 오는 너의 모든 의롭
지 못한 삶,
나의 재림에 긴장하지 못하고 안일한 삶을 사는
것,
이 모든 것이 다 죄니라.

시간을 아껴라.
다시 사랑을 회복하라.
자신을 좀 더 세밀히 자세히 보고
소망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인생 설계하며
희망으로 뜻 이루자.

나는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길 원한다.
사랑하면 쉽다.
먼저 나를 향한 간절한 사랑 찾고
내 사랑에 초점 두고 너희 삶을
기도함으로 내 뜻대로 방향을 잡아보자.

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.
내가 낙심하는 것, 가장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
다.
내 너를 도울 테니 다시 사랑으로 날아오르자.

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
내 사랑을 어찌하면 깨닫고
어찌하면 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
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이니
내 사랑 얻고자 몸부림치고 삶의 계획 잡아보자.
절대 어렵지 않으니
내 사랑아...
낙심치 말고 내 사랑에 올라오라.

지금도 너희 사랑만을 구걸하는 나 여호와니라.
사랑한다.
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.
、